

## 200자 안내

### 빌헬름 텔

프리드리히 실러 지음 / 한기상 옮김

오스트리아의 압제적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 운동을 피하는 스위스의 발트 슈테텐의 주민들과 주인공 텔의 이야기를 다룬 5막으로 된 희곡. 발트슈테텐의 역사적 사건인 '게스타다노룸'과 '디트렉의 전설'에 나오는 사과소기 전설을 소재로 하여 자유를 위한 투쟁을 그리고 있으며 스위스의 자유민들이 총독관의 폭력에 맞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 스위스의 민족극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범우사/B6 변형/224면/3500원

### 웃으면서 하는 공부

박상률 외 지음

학습능력을 높이려면 각 과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 책으로 국어·영어·수학을 비롯한 10개 과목들의 고유 특성과 학습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교과서와 참고서를 교재로 삼아 공부할 때의 학생능력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방법도 일러준다. 또한 단순히 학습요령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어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은 장차 작가나 언론인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장래계획도 조언한다.

한민사/A5신/206면/3500원

### 무녀별곡 5

서정범 지음

문화적 표현인 무속은 "정신적인 뿌리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자가 무녀에 관심을 가지고 썼던 '무녀별곡'의 완간편. 무속인이 되는 이유와 무속인이 되기 전에 앓게 되는 무병의 원인 그리고 굿을 할 때 작두를 타고 뛰는 무속인의 힘의 근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A5신/314면/5000원

###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안 치홀트 지음/안상수 옮김

'글자를 부리는 기술' 혹은 '활자학'을 의미하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하여 비대칭으로 표

현되는 신타이포그래피를 지향한 독일인 안치홀트의 저서. 활자 크기나 굵기와 관련, 순서·색채·사진 등을 활용하여 그것에 일관된 내용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해 편집 디자이너와 편집자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책. 안그래픽스/A5신/196면/7000원

### 일석사조 101가지 고사성어 이야기 1

김아리 지음/박향미 그림

딱딱하고 재미없는 공부로 치부하기 쉬운 고사성어를 동화나 만화처럼 풀어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한문과 친해질 수 있도록 편집한 한문교재. 천리 밖까지 내다보는 눈이라는 뜻으로 가만히 앉아서 천리 밖의 일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천리안'을 비롯해 '배수진' '철면피' 등 101가지 고사성어를 역사적인 근거와 유래를 찾아서 재미있고 알기쉽게 풀이하고 있다.

논장/A5신/216면/4800원

### 작은 천사들의 분노

길병덕 지음

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생들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 2학년 3반 교실에는 대학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 외에 재혼한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폭행을 일삼는 오희수와 시골에서 유학와 경제적인 압박과 빠른 수업진도에 우울을 느끼고 급기야 같은 반 숙영을 따라 술집에 나가는 경림 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학생들과 이런 교육현실을 보면서 무감동 시험을 시행하는 여교사 류상희의 교육개혁을 그리고 있다.

나라원/A5신/338면/5500원

### 채시라의 사랑의 테마

채시라 지음

KBS 제2FM 라디오 영화음악실의 DJ였던 저자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단상을 적은 책. 「에수」 「셀부르의 우산」 「사관과 신사」 등 추억의 명화와 최근에 상영되었던 「텔리카트슨」 「책 읽어주는 여자」 「도어즈」를 소개하고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이야기와 테마음악 그리고 저자가 느낀 감동을 전한다. 영화와 함께 작품을 잘 나타내 주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어 오드리 헵번이나 제임스 딘과 같은 잊혀진 배우들과 만날 수도 있다.

미래미디어/A5신/254면/5000원

### 깨끗해 텅 빈 마음 밝기가 대낮같네

김규대 엮음

현재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종참모 겸 화랑호

국선원에서 정진중인 엮은이가 원효스님, 서산스님 등 70여명의 스님들이 남긴 수많은 선시를 기존의 해석과 엮은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 엮은 책. "제 갈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제 모습을 비추어 마음의 매무새를 바로잡는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는 엮은이의 서문처럼 감동을 주는 선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토방/A5신/152면/3000원

### 돌아오는 남자 (1·2)

도리스 몰트만 지음/이지연 옮김

초창기 미국 이민세대의 삶의 애환과 생명력을 자손에게 전수하려는 동기에서 탄생한 '리베카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딸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주인공 징크스에 대한 출생의 비밀과 독특한 이름에 대한 의구심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출세와 사랑, 만남과 애증 등 삶의 역정 속에 사랑을 찾아가는 줄거리. 이 소설은 주인공의 역정을 통하여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라는 느낌을 안겨준다.

청조사/A5신/각 424면 내외/각 5000원

### 자기 생각만들기

정의연 지음/조중현 그림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낌을 기록해 둘 수 있는 독서공책이다.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과 책을 읽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요령, 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독후감쓰기의 방법들을 제시하였고 청소년 권장 도서목록 250권을 장르별로 수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독서실태와 올바른 독서에 관한 삽화를 넣어 재미있게 편집했다.

푸른나무/A5신/226면/3500원

### 논개

정환숙 지음

평범한 기생 논개가 대의를 위해 순절하기까지 저변에 깔린 삶의 이야기를 작가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형상화한 장편소설. 성이 주씨이며 전라도 장수 땅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조실부모하여 어렸을 때에 기적에 올랐던 논개의 삶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맞물려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이한다는 게 줄거리. 이 소설은 논개와 애인 황진의 애절한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속에서 변화해 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여준다.

청아/A5신/478면/6000원

### 공포특급

한국공포문학연구회 엮음

함축적인 언어로 간결하며 감각적으로 기술된 공포이야기를 담은 책. 유령아파트·무서

운 학교·음산한 별장·지옥의 도시 등 각 이야기들의 배경에 따라 4장으로 분류하여 93편의 무서운 이야기를 실고 있다. 제목부터 음산하기 그지없는 이 이야기는 과학의 이름으로 풀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나열하여 읽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한뜻/A5신/214면/4000원

### 슈퍼마리오 (1·2)

클라이드 보스코 지음/윤승현 옮김

읽는 사람이 직접 내용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개의 줄거리를 좇아 그 상황에 따라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한편의 소설을 만들어 읽어갈 수 있게 엮었다. 읽는 재미와 보는 즐거움, 문제를 푸는 유익함이 함께 하는 이 책은 전자오락의 흥미를 능가하는 내용과 폭력적이지 않은 그림이 실려 있어 지능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산하/A5신/각 122면/각 4000원

### 천사의 방황

칼루다 월링검 지음/이정석 옮김

1930년대의 대공황 중에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씌어진 소설. 주인공 로즈의 천성적인 관능미에 끌리지만 한 가정의 주인이며 선량한 남편이고자 하는 윌리아씨. 로즈의 선량함에 끌려 로즈가 아무 생각없이 저지르는 사건들을 끝까지 옹호하는 윌리아 부인 그리고 그 같은 어른들의 세계를 지켜보는 열세 살 소년의 심리가 묘사된다. 가족처럼 연인처럼 여기던 로즈가 암으로 죽기까지의 일생을 사랑으로 지켜보는 한 가정의 이야기.

책과벗/A5신/336면/5000원

### 사랑만을 위한 철학

잠폴스키 지음/위미숙 옮김

정신과 의사로서 '태도요법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저자가 태도요법에 대하여 예제이 형식을 빌어 설명한 책. 태도요법이란 물리적, 화학적 치료가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방법이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태도라고 역설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임상경험을 통해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천지서판/A5신/252면/4500원

### 피어라 금잔화

민병삼 지음

「다시 밟는 땅」 「그 여름에 날개 내리다」로 호평을 받았던 작가가, 남성들의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현대 산업사회의 성 상품화 앞에서 힘없는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린 장편소설. 교사인 주인공 서나연은 부모들의

그릇된 교육으로 희생된 학생을 보고 괴로워 하는데, 자신을 납치하고 강간한 만덕을 살해하고 만다. 그러나 “이별을 슬퍼하면서 피는 금전화”를 가르쳐 주었던 강현우와의 사랑은 깊어간다.

호암/A5신/304면/5000원

### 제3제국의 흥망 (전4권)

윌리엄.L. 사이러 지음/유승근 옮김

1945년 제3제국이 멸망하기 전 히틀러의 나치스당이 저질렀던 전쟁살상행위와 유대인 학살행위 등을 상기하면서, 저자는 히틀러와 나치스당 및 제3국의 3위 일체의 테마를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한편 저자는 나치스들이 패망 중 소각해버리기 바로 직전에 각지의 성곽이나 광산의 갱 속에 숨겨놓은 4백85톤에 달하는 독일 의무성 기밀문서, 수십만부의 군사기밀 문서, 뉘른베르크 재판증언기록과 특과원 시절 현지 취재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고 있다.

에디터/A5신/각 438면 내외/각 6500원

### 김삿갓

김용철 지음

김삿갓은 원래 이름이 김병연으로 뛰어난 시재를 타고났으나 할아버지 김익순이 흥종래 난 때 난군에게 항복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재앙을 당한 불우한 시인.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잘 알면서도 우회적 달관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 나간 김삿갓의 초인적 기인적 기질”을 문헌자료에 의거해 익살과 재담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장편소설.

한벗/A5신/312면/5000원

### 그의 가슴속에는 늘 고향의 들꽃이 피어난다

안성호 지음

농촌의 모습을 소재 삼아 토속적이고 전원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한 수필집. 자연의 순응자로서 주로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으며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논지가 담겨 있다. 문명사회 속에서 감각적인 쾌락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자연의 정취와 옛 선인들의 지혜를 잔잔하게 전해준다.

영웅/A5신/272면/4000원

### 장군의 딸

넬슨 드밀 지음/최수민 옮김

날카로운 추리력과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추리소설. 웨스트 포인트의 자량이자 심리학 박사이며 장군의 딸인 여군대위 앤 캠벨이 어느날 알몸으로 사지가 땅바닥에 묶여져 죽은 채 발견된다. 이렇게 시작되는 사건을 CID(범죄수사대)의 두 남녀 수사관이 전모를

파헤치게 된다. 한 인간의 상처가 낳은 복수와 응징의 실상이 그려지며, “군사회에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명에”라는 특수성도 작품 속에 깔려 있다.

동화출판사/A5신/각 336면 내외/각 5000원

### 반년간지

#### 법과 사회 (93년 하반기)

[특집 1] 사법 개혁의 모색 ▲사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한다(양건) ▲법관은 판결로만 말하는가(방희선) ▲사법권과 정치권력(이헌환)

[특집 2] 여성문제와 법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이은영) ▲가족법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조은) ▲여성과 형사법(최은순) ▲여성과 노동복지관계법(김엘림)

[법의 얼굴]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김성태) [기획연재] 한국법학의 반성과 과제 4 ▲한국의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 간의 상위와 그 극복(최태현)

[변화하는 법·법학] 법인류학의 연구영역과 방법(이문웅)

[논단] ▲미국의 법무보험(오수근) ▲법해석학의 포스트모더니즘(강진철) ▲법의학—법과 의학을 잇는 다리(이윤성)

[진단] 입법의 문제 3 ▲한국 특례법의 문제(박영도)

[시대와 법학자] 나의 청춘 나의 학문(장경학)

[판례비평] 단체협약체결권의 법리를 왜곡한 대법원 판결(김선수)

[서평] 사법연구의 귀중한 기초자료(윤철홍) 창작과비평사/A5신/352면/6000원

# 35년이 흘렀습니다.



## 다시 35년이 흐를 것입니다.

1958년 4월 출판인들은 협동조합운동의 이념 아래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형 출판 유통기구로서 한국출판협동조합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푸른 이념의 빛이 바래지는 않았으나, 그 나무가 바람대로 자라나고, 다음 세대의 출판을 위하여 서늘한 그늘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겠지요. 앞선 35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35년은 흘러 갈 것입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원화공급이 있습니다.**

#### ■ 일원화 공급 참여 출판사

- 경연사 •과학과 예술 •광문각 •극동문화 •기다리 •대웅출판사 •대훈사 •보문당 •보성사
- 법률신문사 •사회문화연구소 •서광사 •성균관 •성음각 •양문각 •엘멘출판 •열화당 •오덕원
- 요기선 •유림문화사 •음악예술사 •이론과 실천 •전통문화연구회 •전파과학사 •정문출판사
- 중원문화 •증권서적(출판부) •창조사 •태성출판사 •하남출판사 •한국산업경영연구소 •한국어학
- 개발원 •한국의대(출판부) •항학사 •현대미술사 •현상과 인식 •홍문관 •화평사 •한겨레
- 신문(출판국) •한국문화사 •한림원

#### ■ 한국출판협동조합 일원화 공급위원회

연락처 : <공급부>전화 716·5616~9 팩스 716·2995, 716·2999  
<총무부>전화 716·5621~3

